

초대형 기획사 탄생...글로벌 공략 '탄탄대로'

K팝스타 연합 '어벤저스' 탄생
자본-기획 결합해 시너지 막강
세계 대중음악 시장 바꿀 수도
일부선 음악시장 독과점 우려
SM선 '적대적 M&A 반대' 내분



이수만 방시혁

글로벌 그룹 방탄소년단(BTS)과 '차세대 BTS' NCT가 한 지붕에 있는 '초대형 공룡' 기획사가 탄생한다. 방탄소년단과 세븐틴 등을 배출해 미국시장에서 케이팝 선두를 달리고 있는 하이브가 1세대 케이팝 기획사 SM엔터테인먼트(SM)를 전격 인수하면서 국내를 넘어 세계 대중음악 시장에 미칠 파장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초대형 공룡 기획사 탄생...독과점 우려도

하이브는 10일 공시를 통해 경쟁사인 SM 대주주인 이수만 전 총괄 프로듀서인 지분 14.8%(352만3420주)를 4228억 원에 인수한다고 밝혔다. 취득 예정일은 3월 6일이고, 이번 지분 인수로 하이브는 SM의 최대 주주로 올라서게 됐다. 카카오가 앞서 7일 9.05%를 확보하는 유상증자를 골자로 SM 경영진과 손잡았지만, 하이브와 이수만이 다시 손을 잡으면서 단숨에 판도를 뒤집어버렸다. 눈길을 끄는 것은 이번 '빅딜'로 어떤

결과물이 만들어질지 관심이 집중되어 있다. 하이브의 자본력과 SM의 기획력이 결합해 막강한 시너지를 낼 수 있을 때문이다.

하이브에는 '케이팝 1등'인 방탄소년단을 필두로 세븐틴, 투모로우바이투게더, 엔하이픈, 뉴진스, 르세라핌 등 인기 스타들이 포진해있다. SM도 동방신기, 소녀시대, 슈퍼주니어, 샤이니, 엑소, NCT, 에스파 등 IP(지식재산권)를 보유하고 있어 그만큼 이들의 결합에 케이팝 전체에 호기심이 쏠려있다.

방시혁 의장은 "SM 인수는 양사의 글로벌 역량을 결합해 세계 대중음악 시장에서 게임 체인저(changer)로 도약하기 위한 것"이라며 "하이브의 역량을 투입해 글로벌 시장에서 케이팝의 위상을 더욱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반면 일부에서는 음악 시장질서 교란 등 독과점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2019년 6월	KB자산운용 지배구조 개선 배당확대 주주서한 SM엔터테인먼트 "프로듀싱이 차지하는 중요성 모르는 것" KB요구 거부
2021년 5월	SM 매각설 처음 제기 SM, 공시를 통해 카카오·네이버와 매각 협상 사실상 인정
2022년 2월	소액주주인 행동주의펀드 얼라인파트너스 "SM지배구조 개선 요구"
3월	SM주총 표 대결에서 얼라인이 추천한 감사인(곽준호) 선임
4월	네이버 "SM인수 안해" 카카오 "미확정"
8월	얼라인, SM에 이수만 개인회사(라이크기획) 계약 개선 및 배당 확대 촉구
10월	SM, 연말까지 라이크기획 프로듀싱 용역 계약 조기 종료 공시
12월	얼라인, SM 이사회구조 개편 등 요구
2023년 1월	SM, 얼라인 촉구사항 수용
2월 3일	이수만 없는 SM 3.0체제 발표... 이수만 반발
7일	카카오, 유상증자 형태로 SM지분 9.05% 확보
8일	이수만, SM상대로 제3자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금지 가져본 신청
10일	하이브, 최대주주인 이수만 지분 14.8% 확보 발표... SM경영진 반발

막대한 자금력을 투입해 키운 이들의 신인 등은 주목받지만, 그만큼 중소기획사 신인 그룹의 경쟁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팬들과 전문가들도 각 회사가 유지해온 고유 콘셉트와 색깔을 잃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박희아 대중음악평론가는 "SM이 케이팝의 오리지널리티를 확보한 가장 역사 깊은 회사라는 점에서 그들이 지녔던 상징성이 해를 입은 것"이라며 "SM과 소속 아티스트들을 수호하다시피 해온 팬들을 위한 판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돌로 쪼개진' SM '적대적 M&A 반대'

하이브의 주시 매입으로 SM 경영진과의 마찰은 불가피해 보인다. SM 이성수·탁영준 공동대표이사 등은 "모든 적대적 M&A에 반대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SM의 경쟁사인 하이브가 "SM이 이룩한 모든 업적의 중심에는 이수만 전 총괄 프로듀서가 존재했다"며 "이수만 전 총괄 프로듀서는 척박했던 대한민국 대중음악을 산업화시키고, 세계의 흐름으로 우뚝 서게 한 음악인들의 레거시(유산)"라며 이수만과의 연대를 공개적으로 드러내 눈길을 끌었다. 이어 "이수만 전 총괄 프로듀서와 하이브는 SM의 지배구조 개선과 경영 선진화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고 했다.

이에 SM 경영진이 반발하면서 SM은 돌로 쪼개지게 됐다. 이수만과 오랜 기간 호흡을 맞춘 히트작곡가 겸 음영진 이사와 김민중 등도 "이수만의 뜻을 따르겠다"고 나서면서 다음 달 예정된 주주총회에 더욱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정연 기자 anjoy@donga.com

탑건·슬램덩크·타이타닉...극장가 '추억의 바다'에 빠지다

'그 시절 감성' 자극... 흥행 릴레이
입소문 타고 2030세대까지 열광
5월엔 '아기공룡 둘리' 컴백 예약
전문가 "콘텐츠의 질이 중요" 일침



영화 '탑건: 매버릭'과 애니메이션 '더 퍼스트 슬램덩크' (왼쪽부터)가 관객의 향수를 자극하며 흥행에 성공했다. 사진제공 | 롯데엔터테인먼트·NEW

극장가에 '추억'이 흥행 키워드로 떠올랐다. 지난해 36년 만에 돌아와 열풍을 일으킨 '탑건: 매버릭'과 최근 '슬램덩크'의 인기, 그리고 개봉 25주년을 맞아 다시 스크린에 걸린 '타이타닉'이 관객을 극장으로 이끌고 있다. '그때 그 시절 감성'이 인기의 원동력이다.

●20대 젊은 관객까지 열광

'더 퍼스트 슬램덩크'(슬램덩크)가 개봉 39일째인 11일까지 누적관객 273만1649명(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을 모아 '하울의 움직이는 성을' 꺾고 일본 애니메이션 역대 흥행 2위에 등극했다. 16일째 박스오피스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영화는 7주차에 아이맥스 상영까지 추진하고 있다.

원작 만화를 즐겼던 30~40대 관객들이 전체 관객의 65%(CJ CGV예매관객 분석)를 차지하며 열광적인 지지를 보내고 있는 가운데, 개봉 초반 10%에 불과했던 20대 관객도 영화의 인기와 함께 늘어나 20%를 넘었다.

개봉 25주년을 맞아 9일부터 재개봉한 '타이타닉'은 신작을 제치고 11일 현재까지 7만4683명을 모으며 '슬램덩크'에 이어 3일째 2위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개봉 후 25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아



바타', '어벤저스: 엔드게임'에 이어 역대 글로벌 흥행 순위 3위를 지키고 있는 영화는 CGV 실관람객 평점인 '골드 에그지트' 99%를 차지하며 20년이 넘는 시간을 뛰어넘는 명작임을 입증했다. 1998년 처음 개봉 당시 극장이 아닌 VOD 등으로 관람했던 20대 관객들의 발걸도 적극적으로 끌어당기고 있다.

●'탑건2'부터 '둘리'까지, 중요한 건...

두 영화의 흥행은 지난해 여름 개봉해 무려 80일간 박스오피스 5위권에 들며 지

난해 외화 최고 흥행(누적관객 817만 명)을 기록한 '탑건: 매버릭'과 잇비슷하다. 영화는 개봉 초반 1986년 전편을 즐겼던 40대 관객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으나 입소문이 나면서 20~30대 관객 비율을 점점 높였다.

이런 분위기 속에 추억을 상징하는 대표 만화 '아기공룡 둘리'(둘리)도 5월 스크린으로 돌아와 예정이다. 둘리 탄생 40주년을 맞아 1996년 '아기공룡 둘리: 얼음별 대모험'을 4K 리마스터링 해 재개봉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SNS에 기대 섞인 글들이 쏟아지고 있다.

하지만 추억의 콘텐츠가 모두 성공하는 건 아니다. 2000년 동명의 한국 대표 멜로리메이킹한 '동감'이 지난해 레트로 붐 속에 개봉했으나 흥행과 처참한 실패를 맞았다.

정덕현 대중문화평론가는 "결국 가장 중요한 건 콘텐츠의 질"이라며 "양질의 콘텐츠가 과거 추억을 떠올리는 세대들 단단하게 집결시키는 것은 물론 해당 콘텐츠를 처음 접하게 되는 젊은 층까지 확대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승미 기자 smlee@donga.com



유아인

"혈, 마약 의혹까지?"...유아인 '스캔들' 후폭풍

제약·패션 등 광고계 손절매
출연한 영화·드라마 전전공공
팬들 "해명해야" 비판 목소리

배우 유아인(엄홍식·37)이 프로포폴 상습 투약 정황에 이어 대마 흡입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후폭풍이 거세게 일고 있다. 유아인을 광고모델로 내세운 기업체들은 일제히 그의 이미지를 삭제하는 등 조치에 나섰고, 팬들은 침묵을 유지하는 유아인을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마약범죄 수사대는 최근 프로포폴 상습 투약 혐의의 조사를 받고 있는 유아인이 국립수사연구원의 마약류 소변 검사에서 대마 양성 반

응을 보인 것으로 확인했다. 다만 프로포폴은 음성 반응이 나왔다.

앞서 경찰은 유아인이 2021년 초부터 여러 병원에서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 받았다고 보고 8~9일 강남구, 용산구 일대 다수의 병·의원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벌여왔다. 경찰은 5일 유아인이 미국에서 입국한 직후 채취한 모발의 감정 결과를 기다리면서 그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포렌식 작업을 벌이고 있다. 모발 감정 결과는 열흘 이내에 나올 전망이다.

유아인을 둘러싼 마약 관련 의혹이 계속 이어지면서 국내외 광고계는 곧바로 선긋기에 나섰다. 유아인이 광고모델로 있는 한 제약회사는 홈페이지와 유튜브 채널 등에서 그가 나온 사진과 영상 등을 삭제했

다. 브랜드 홍보에 적극 활용돼왔던 패션 브랜드 회사도 관련 광고를 모두 내렸다. 중국 시나연예 등에 따르면 유아인을 광고 모델로 내세웠던 중국 의류업체는 "어떤 형태의 마약 관련 행위에 대해 결연히 반대한다"면서 유아인과 관련한 홍보물 등을 당장간 사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누리꾼들은 유아인이 그동안 개인 SNS를 통해 각종 사회적 이슈에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왔던 만큼 실망감이 크다는 반응을 쏟아내고 있다. 12일 일부 팬들은 한 커뮤니티 게시판을 통해 "자신의 직업과 삶에 대한 남다른 소신과 철학을 보여준 인간 엄홍식은 어디로 자취를 감추었는가"라며 해명을 촉구했다. 영화 '승부', 드라마 '종말의 바보' 등 그가 출연한 작품의 제작진은 경찰 조사 결과가 나온 이후 본격적인 대책을 세울 예정이다.

유지혜 기자 yjh0304@donga.com

연예뉴스 HOT 5

김혜수·박서준·천우희...튀르키예 기부 줄이어



김혜수

배우 김혜수, 박서준, 천우희, 주현영, NCT 도영 등이 튀르키예·시리아에 발생한 대규모 지진 피해 복구를 위해 온정의 손길을 더하고 있다. 이들은 12일 오후까지 기부 행렬에 동참하며 사람들의 관심을 촉구했다. 김혜수와 박서준은 유니세프한국위원회에, NCT 도영은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1억 원을 쾌척했다. 천우희, 주현영은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에 각각 2000만 원과 3000만 원을 기부했다. 박진영이 이끄는 JYP엔터테인먼트는 월드비전에 5억 원을 기탁하며 "삶의 터전을 잃은 아동과 주민들에게 깊은 위로를 전한다"고 밝혔다.

'뮤직뱅크' 점수 조작 의혹, 무혐의로 일단락



뮤직뱅크

KBS 음악프로그램 '뮤직뱅크' 점수 조작 의혹이 경찰 조사 결과 무혐의로 일단락 됐다. KBS와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업무방해 의혹이 제기된 '뮤직뱅크' PD 등 제작진에 대해 입건 전 조사를 진행했으나

무혐의로 불송치했다. 경찰은 지난해 5월 13일 '뮤직뱅크' 제작진이 가수 순위를 정하는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가수 임영웅의 점수를 조작했다는 민원을 접수해 조사를 진행해왔다. 당시 임영웅은 걸그룹 르세라핌과 함께 1위 후보에 올랐으나 방송 횟수 점수에서 0점을 받아 2위가 됐다. 논란에 대해 KBS는 "라디오 부문에서 KBS 쿨FM의 7개 프로그램 이외는 집계 대상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블랙핑크, 영 '브릿 어워즈' 수상 아쉽게 불발



블랙핑크

걸그룹 블랙핑크가 영국 최고 권위 대중음악상인 '브릿 어워즈'(BRIT Awards)에서 한국 걸그룹 최초로 후보에 올랐으나 수상에는 실패했다. 12일(한국시간) 영국 런던 오후(02) 아레나에서 개최된 시상식에서 블랙핑크는 '올해의 인터내셔널 그룹' 부문 후보에 올랐으나 트로피는 아일랜드 더블린 출신 포스트 펑크 밴드 폰테인스 D.C.에게 돌아갔다. 블랙핑크는 지난해 발매한 정규 2집 '본 핑크'로 케이팝 걸그룹 최초로 미국 빌보드 '빌보드 200', 영국 오피셜 앨범 차트 '톱 100' 정상에 오르는 등 세계적인 인기를 끌면서 후보에 이름을 올렸다.

동방신기, 3년 만에 일본 10개 도시서 콘서트

그룹 동방신기가 3년 1개월 만에 일본에서 콘서트 투어를 연다. 12일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동방신기는 전날 아이치를 시작으로 일본 전국 라이브 투어 '동방신기 라이브 투어 2023 ~클래식~'에 돌입했다. 이들은 히로시마, 후쿠오카, 후쿠이, 미야기, 사이타마, 홋카이도, 니가타, 오사카, 도쿄 등 10개 도시에서 총 20회에 걸쳐 공연을 펼친다. 동방신기는 1일 일본 세 상급 '패러렐 패러렐'을 발매한 후 현지에서 인기를 모으고 있다.

신인 뉴진스, 2월 걸그룹 브랜드평판 1위 올라



뉴진스

신인 걸그룹 뉴진스가 거침없는 행보를 선보이고 있다. 뉴진스는 12일 한국기업평판연구소가 발표한 2월 걸그룹 브랜드평판에서 1위를 차지했다. 해당 순위는 1월 12일부터 2월 12일까지 측정된 5243만여 개의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다. 뒤를 이어 블랙핑크와 하이킴, 아이브 등이 순위에 이름을 올렸다. 지난해 7월 데뷔한 이들은 10~11일 서울 잠실실내체육관에서 열린 '한터뮤직 어워즈 2022'에서 신인상을 수상하면서 6개월여 만에 6개의 신인상 트로피를 안았다.